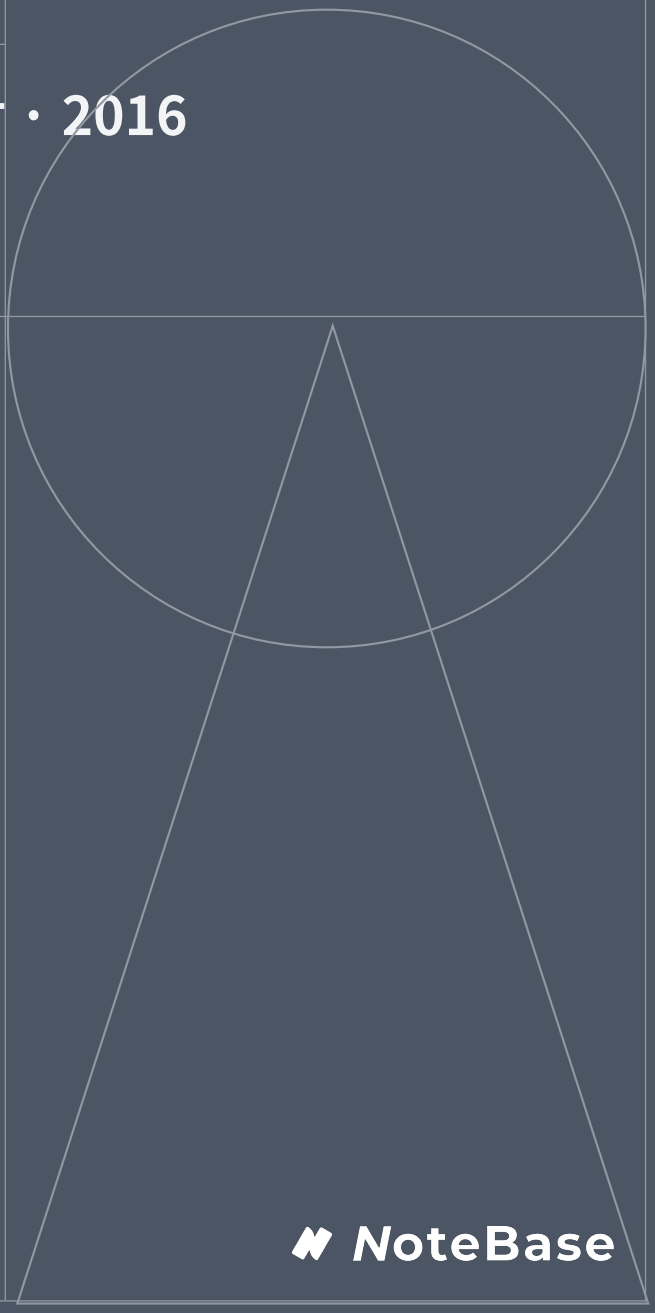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16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16

문 1.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란 일시적인 경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품목의 수입증대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나 국내소비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상향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① 편익관세
② 계절관세
③ 상계관세
④ 조정관세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일시적 경제사정에 대응하여 특정 수입품의 관세를 조정하는 조정관세를 편익관세·계절관세·상계관세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거나 소비생활 질서 문란 우려가 있을 때 관세를 가감하여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관세이다. 키워드는 일시적 경제사정, 수입증가, 국내산업 보호이다.
편익관세는 조약상 편익을 받지 못하는 나라의 물품에 이미 다른 나라에 부여한 관세상 편익 범위의 혜택을 주는 관세이다. 키워드는 관세상 혜택 부여이다.
계절관세는 계절에 따라 가격 차가 큰 물품에 계절적 수급과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키워드는 계절성, 가격차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그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키워드는 보조금 상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편익관세는 관세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지, 수입증가로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될 때 관세를 상향조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특정 품목의 수입증대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 관세를 상향조정하여 부과"이다. 올바르게는 "조약상 편익을 받지 못하는 나라의 물품에 일정한 관세상 편익을 부여"이다.

② X
계절관세는 계절에 따른 가격 차와 시장교란 가능성이 큰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이다. 문제처럼 일시적 경제사정과 수입증가에 대응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와는 다르다.
틀린 표현은 "일시적인 경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바르게는 "계절에 따라 가격 차가 큰 물품에 계절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③ X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 그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려는 관세이다. 단순한 수입증가나 소비생활 질서 문란 우려만으로 부과하는 관세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특정 품목의 수입증대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이다. 올바르게는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때 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이다.

④ O
조정관세는 일시적 경제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관세로, 특정 품목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거나 국내소비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관세를 조정하여 부과한다. 지문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탄력관세라는 공통점 때문에 이름만 보고 헷갈리기 쉽다. 이 문제는 적용 사유를 묻는 문제이므로 "보조금"이면 상계관세, "계절·가격차"이면 계절관세, "관세상 혜택 부여"이면 편익관세, "일시적 경제사정·수입증가 대응"이면 조정관세로 구분하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세 종류 문제는 먼저 부과 이유를 찾으면 된다. 수입억제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일시적 조정이면 조정관세이고, 보조금 상쇄인지, 계절성 대응인지, 혜택 부여인지로 나머지 관세를 구분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조정은 경제사정 조정, 상계는 보조금 상쇄, 계절은 계절 가격, 편익은 관세 혜택 부여이다.

NoteBase

문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환율결정이론은?

◯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이 적용된다.
◯ 카셀(G. Cassel)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환율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설명한다.
◯ 물가를 측정하는 대상 재화에서 비교역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이론의 현실 설명력이 떨어진다.

① 환심리설
② 구매력평가설
③ 대표수요이론
④ 국제대차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카셀의 구매력평가설을 일물일가의 법칙, 인플레이션과 환율의 장기 관계, 비교역재 비중과 연결해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1번 환심리설: 외환시장의 기대와 심리가 환율 변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설명이다.
2번 구매력평가설: 카셀의 이론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 차이가 환율에 반영된다고 본다.
3번 대표수요이론: 각국의 대표적 수요구조 차이와 그에 따른 교역 패턴을 설명하는 쪽에 가깝고, 환율과 인플레이션의 장기 관계를 직접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다.
4번 국제대차설: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국제수지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파악하는 이론으로, 물가수준 중심 이론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환심리설은 시장참가자의 기대, 투기, 심리 상태가 환율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설명이다. 문제의 단서인 일물일가의 법칙, 카셀, 인플레이션과 환율의 장기 관계와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환심리설'이며, 올바르게는 '구매력평가설'이다.
② O: 구매력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제로 하며, 카셀이 체계화한 이론이다. 장기적으로 두 나라의 물가상승률 차이가 환율 변동에 반영된다고 설명하므로 제시문과 일치한다.
③ X: 대표수요이론은 국가별 수요구조와 무역구조 설명에 초점이 있다. 문제처럼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통해 환율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대표수요이론'이며, 올바르게는 '구매력평가설'이다.
④ X: 국제대차설은 국제수지나 대외채권·채무 상태를 통해 환율을 설명한다. 일물일가의 법칙이나 물가수준 비교를 핵심으로 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국제대차설'이며, 올바르게는 '구매력평가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카셀이라는 인물 단서만 놓치면 ①의 심리, ④의 국제수지처럼 환율결정이론 일반을 넓게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에는 '일물일가의 법칙', '장기적 관점', '인플레이션', '비교역재 비중이 높으면 설명력 저하'가 함께 들어 있으므로 구매력평가설로 바로 좁혀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환율결정이론 문제에서 물가수준, 인플레이션, 일물일가의 법칙, 카셀이라는 단서가 보이면 먼저 구매력평가설을 떠올린다. 국제수지나 채권·채무가 나오면 국제대차설, 기대와 투기가 나오면 환심리설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카셀-일물일가-물가상승률-장기환율이면 구매력평가설이다.

NoteBase

문 3. 내부화 이론에서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된다고 한다. 시장의 불완전성을 유발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매자 불확실성
② 정부의 개입
③ 계약체결의 어려움
④ 완전경쟁 상태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내부화 이론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유발하는 시장 불완전성의 원인과 완전경쟁 상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부화 이론은 외부시장을 통한 거래에 마찰이 크면 기업이 거래를 기업 내부로 흡수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한다는 이론이다.
시장 불완전성은 정보 비대칭, 거래비용, 계약집행의 어려움, 정부 규제처럼 시장거래를 원활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다.
완전경쟁은 정보가 충분하고 거래장애가 작아 시장을 통한 거래가 효율적인 상태이므로 내부화 유인이 약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구매자 불확실성은 정보 비대칭과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을 뜻하므로 시장거래 비용을 높이는 시장 불완전성 요인이다.
② O : 정부의 개입은 관세, 규제, 각종 제한을 통해 시장거래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내부화 유인을 높이는 요인이다.
③ O : 계약체결의 어려움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상, 감시, 집행 비용을 높이므로 시장 불완전성을 키운다.
④ X : 틀린 부분은 '완전경쟁 상태'이다. 완전경쟁은 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이므로 시장 불완전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독점, 과점, 정보 비대칭 같은 불완전경쟁 요인'이 내부화 유인을 만든다.

오답 포인트

발문은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다. ①~③은 모두 시장거래의 마찰을 키우는 요인인데, ④는 오히려 시장거래가 원활한 상태라서 반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부화 이론 문제는 먼저 '시장거래를 어렵게 만드는가, 쉽게 만드는가'를 기준으로 본다. 거래비용과 불확실성을 높이면 내부화 요인이고, 완전경쟁처럼 시장거래를 원활하게 하면 내부화 요인이 아니다.

암기 포인트

내부화 이론은 시장 마찰이 크면 FDI, 완전경쟁이면 시장거래 유지이다.

NoteBase

문 4. 대체적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②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존중된다.

③ 절차는 공개되지만 개인의 비밀은 유지된다.

④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판정을 함으로써 전문성이 보장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체적분쟁해결(ADR)의 장점과 소송절차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DR은 소송 외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며, 신속성, 비용 절감, 비공개성, 당사자 자율성, 전문성 활용이 대표 장점이다. 소송은 공개주의가 원칙이지만 ADR은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어 비밀유지에 유리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ADR은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유연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② O: ADR은 당사자 간 합의와 자율성을 중시하므로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존중된다.
③ X: 틀린 부분은 "절차는 공개되지만"이다. ADR의 장점은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성에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개인이나 기업의 비밀 유지에 유리하다"이다.
④ O: ADR은 중재인이나 조정인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어 전문적 판단과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소송의 공개주의와 ADR의 비공개성을 뒤바꿔 놓은 선지이다. 비밀유지라는 결론만 보고 넘어가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앞의 "절차는 공개되지만"이 결정적으로 틀린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쟁해결 제도 문제에서는 공개성, 강제성, 자율성, 신속성의 축으로 먼저 나눈다. 공개가 원칙이면 소송의 성격에 가깝고, 비공개와 합의 존중이 나오면 ADR의 장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ADR은 신속·저비용·비공개·자율·전문성이고, 공개주의는 소송의 특징이다.

NoteBase

문 5. 헥셔-올린(Heckscher-Ohlin) 이론과 리카도(D. Ricardo) 비교우위 이론의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두 이론 모두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은 불가능함을 가정한다.

② 두 이론 모두 국가 간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있음을 가정한다.

③ 두 이론 모두 교역 국가 간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없음을 가정한다.

④ 두 이론 모두 불완전경쟁 시장을 가정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헥셔-올린 이론과 리카도 비교우위 이론의 공통 가정과 비교우위 발생 원인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리카도 비교우위 이론은 국가 간 노동생산성 또는 기술수준의 차이에서 비교우위가 생긴다고 본다.
헥셔-올린 이론은 국가 간 생산요소의 상대적 부존도 차이에서 비교우위가 생긴다고 본다.
두 이론 모두 자유무역의 기본 모형으로서 완전경쟁과 생산요소의 국가 간 비이동성을 전제로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두 이론 모두 생산요소가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역이 발생한다고 본다. 리카도 모형은 노동을, 헥셔-올린 모형은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요소를 국가 간 비이동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두 이론 모두 국가 간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있음을 가정한다"는 표현이다. 요소부존도 차이를 비교우위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헥셔-올린 이론이다. 리카도 이론은 요소부존도가 아니라 노동생산성 차이를 전제로 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두 이론 모두 교역 국가 간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없음을 가정한다"는 표현이다. 리카도 이론은 국가 간 노동생산성 차이가 있어야 비교우위가 생긴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헥셔-올린 이론은 생산성 차이보다 요소부존도 차이를 중시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두 이론 모두 불완전경쟁 시장을 가정한다"는 표현이다. 두 이론은 모두 고전적 자유무역이론으로서 완전경쟁 시장을 가정한다.

오답 포인트

헷갈리는 지점은 비교우위의 원인을 서로 바꾸어 외우는 데 있다. ②는 헥셔-올린의 요소부존도 가정을 두 이론 전체로 확대했고, ③은 리카도의 핵심인 노동생산성 차이를 지워 버렸으며, ④는 완전경쟁을 불완전경쟁으로 뒤집어 놓은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교우위의 발생 원인을 먼저 찾으면 빠르게 풀린다. 생산성 차이를 말하면 리카도, 요소부존도 차이를 말하면 헥셔-올린으로 본다. 시장구조는 두 이론 모두 완전경쟁, 요소이동은 국가 간 비이동으로 정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리카도는 생산성 차이, 헥셔-올린은 요소부존도 차이, 둘 다 완전경쟁과 요소의 국가 간 비이동성이다.

NoteBase

문 6. WTO 분쟁해결절차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패널 및 항소보고서의 채택 시 역만장일치제(reverse consensus system)가 적용된다.

② 분쟁심사를 위한 패널은 보통 3인으로 구성되나, 분쟁당사국들이 패널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합의하는 경우 5인의 패널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은 분쟁당사국들에 대해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④ 패널보고서에 대한 항소는 분쟁당사국만이 할 수 있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WTO 분쟁해결양해(DSU)상 보고서 채택, 패널 구성, 중재의 효력, 항소 주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역만장일치제 =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전원합의가 있어야만 채택이 막히는 방식이다.
중재 = 당사국 합의로 패널 대신 또는 별도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절차이다.

핵심 구분

패널보고서와 항소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자동 채택되는 구조이다. 다만 분쟁해결기구가 만장일치로 채택 거부를 결정하면 채택되지 않는다.
중재판정은 권고적 의견이 아니라 당사국이 따르기로 합의한 기속적 판정이다.
항소는 제3국이 아니라 분쟁당사국만 제기할 수 있고, 제3국은 일정한 범위에서 의견 제출만 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패널보고서와 항소보고서는 모두 역만장일치제로 채택된다. 즉 채택을 막으려면 분쟁상대방까지 포함한 만장일치의 거부가 필요하므로 사실상 자동 채택 구조이다.

② O
- 패널은 통상 3인으로 구성되지만, 분쟁당사국이 패널 설치 후 10일 이내에 합의하면 5인 패널 구성이 가능하다.

③ X
- 중재판정은 분쟁당사국을 기속한다. DSU 제25조상 중재에 회부한 당사국은 그 중재판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 틀린 표현: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 올바른 표현: "중재판정은 분쟁당사국에 대해 기속력을 가진다"

④ O
- 패널보고서에 대한 항소는 분쟁당사국만 할 수 있다. 제3국은 항소권은 없고, 이해관계를 신고한 경우 서면 제출이나 진술 기회만 가진다.

오답 포인트

③은 중재를 단순한 임의적 조정절차처럼 혼동하면 틀리기 쉽다. WTO 중재는 당사국 합의로 개시되지만, 일단 회부되면 그 판정은 당사국이 따라야 하는 기속력을 가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WTO 분쟁해결 문제는 먼저 보고서 채택이 역만장일치인지, 패널이 3인 원칙인지, 항소권자가 당사국에 한정되는지, 중재판정이 기속적인지를 기준으로 선지를 나누면 된다.

암기 포인트

WTO 분쟁해결은 보고서 자동채택, 패널 3인 원칙, 항소는 당사국만, 중재판정은 기속력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7.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활용하는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STP 전략은 현지 시장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

② 세분시장 간에는 동질성(homogeneity)이, 세분시장 내에는 이질성(heterogeneity)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③ 너무 많은 세분시장을 목표시장으로 선정하게 되면 기업활동이 분산되어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④ 포지셔닝(Positioning)이란 고객에게 기업의 제품과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시키고자 하는가를 결정하는 전략적 활동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STP 전략의 기본 개념, 특히 시장세분화의 올바른 기준과 포지셔닝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장세분화는 전체 시장을 유사한 욕구와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나누는 과정이다. 세분화가 잘되려면 세분시장 내부는 동질적이어야 하고, 세분시장 간에는 이질성이 커야 한다. 표적시장 선정은 기업이 집중할 세분시장을 고르는 단계이며, 포지셔닝은 고객 마음속에 자사 제품의 이미지를 어떻게 자리 잡게 할지를 결정하는 활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STP 전략은 해외시장의 고객 특성과 수요 차이를 반영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한 기본 틀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세분시장 간에는 동질성, 세분시장 내에는 이질성"이다. 올바르게는 세분시장 간에는 이질성이 커야 하고, 세분시장 내에는 동질성이 커야 한다.
③ O. 표적시장을 지나치게 많이 선정하면 자원과 마케팅 활동이 분산되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④ O. 포지셔닝은 고객에게 자사 제품과 기업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시키는지가 핵심이므로, 고객 인식의 방향을 정하는 전략적 활동이라는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②는 시장세분화의 기준을 의도적으로 뒤집어 놓은 선지이다. 수험생이 동질성과 이질성의 적용 대상을 헷갈리면 문장 구조가 자연스러워 보여도 오답을 고르기 어렵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장세분화 선지를 보면 먼저 "세분시장 내부"와 "세분시장 간"이 각각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한다. 내부는 비슷해야 하고, 시장 간은 달라야 한다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세분화는 내부 동질, 시장 간 이질, 포지셔닝은 고객 인식 설계이다.

NoteBase

문 8.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2009) 제13조에 대한 내용이다. ㉠~㉢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No claim for (㉠) shall be recoverable hereunder unless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reasonably (㉡) either on account of its (㉢) appearing to be unavoidable or because the cost of recovering, reconditioning and forwarding the subject-matter insured to the destination to which it is insured would exceed its value on arrival.

① ㉠: Constructive Total Loss, ㉡: abandoned, ㉢: actual total loss

② ㉠: Constructive Total Loss, ㉡: subrogated, ㉢: actual total loss

③ ㉠: actual total loss, ㉡: abandoned, ㉢: Constructive Total Loss

④ ㉠: actual total loss, ㉡: subrogated, ㉢: Constructive Total Loss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협회적하약관(2009) 제13조의 문구를 바탕으로 constructive total loss, abandoned, actual total loss의 연결 관계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Constructive Total Loss는 현실적으로 완전멸실이 끝난 상태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전손으로 보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actual total loss는 피보험목적물이 실제로 완전히 멸실되었거나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현실적 전손을 뜻한다.
abandoned는 제13조에서 constructive total loss를 청구하기 위해 피보험목적물을 합리적으로 포기한 상태를 뜻한다.
제13조의 핵심 문구는 'No claim for Constructive Total Loss ... unless ... reasonably abandoned ... on account of its actual total loss appearing to be unavoidable'라는 연결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16

선지별 해설

① O
- ㄱ은 Constructive Total Loss가 맞다. 제13조는 constructive total loss에 대한 청구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 ㄴ은 abandoned가 맞다. 조항 원문이 'is reasonably abandoned'라고 되어 있다.
- ㄷ은 actual total loss가 맞다. 포기의 이유가 'its actual total loss appearing to be unavoidable'이기 때문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ㄴ의 subrogated이다.
- 제13조의 문구는 대위라는 뜻의 subrogated가 아니라 포기를 뜻하는 abandoned이다.
- 따라서 ②는 'Constructive Total Loss - abandoned - actual total loss'로 고쳐야 한다.

③ X
- 틀린 부분은 ㄱ의 actual total loss와 ㄷ의 Constructive Total Loss가 서로 뒤바뀐 점이다.
- 제13조는 actual total loss의 정의조항이 아니라 constructive total loss의 청구요건 조항이다.
- 따라서 ③은 'Constructive Total Loss - abandoned - actual total loss'로 고쳐야 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ㄱ의 actual total loss, ㄴ의 subrogated, ㄷ의 Constructive Total Loss이다.
- 제13조에는 subrogated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으며, 구조도 'constructive total loss 청구 - reasonably abandoned - actual total loss가 불가피'의 순서이다.
- 따라서 ④도 'Constructive Total Loss - abandoned - actual total loss'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total loss 계열 용어를 서로 바꿔 끼우는 데 있다. 특히 actual total loss와 constructive total loss를 같은 전손 개념으로 뭉뚱그리면 ㄱ과 ㄷ의 위치를 뒤바꾸기 쉽고, abandoned를 subrogated와 혼동하면 ㄴ에서 바로 틀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 첫머리에서 무엇에 대한 claim인지 먼저 본다. 'No claim for Constructive Total Loss'가 나오면 ㄱ은 constructive total loss로 고정된다. 그다음 동사 자리는 'is reasonably abandoned'인지 확인하고, 마지막 이유절은 actual total loss가 불가피한지 여부로 읽으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제13조는 CTL 청구요건 조항이므로 CTL - abandoned - ATL 순서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9. 포터(M. E. Porter)가 제시한 기업 가치사슬(value chain) 모형의 세계적 배치활동에서 본원적 활동(primary activity)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국으로부터 원자재와 부품 조달(in-bound logistics)
ㄴ. 외국기업과 공동 기술 개발
ㄷ. 해외지사를 통한 마케팅 및 제품 판매
ㄹ. 해외지사를 통한 우수한 인적자원의 채용 및 교육 · 훈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포터의 가치사슬에서 본원적 활동과 지원활동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본원적 활동은 제품의 물적 흐름과 직접 연결되어 가치 창출에 바로 관여하는 활동이다. 키워드는 조달, 생산, 판매, 서비스이다.
지원활동은 본원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는 활동이다. 키워드는 기술개발, 인적자원관리, 기업하부구조, 구매활동이다.
ㄱ의 원자재와 부품 조달은 투입물의 반입과 관련된 내적 물류이다.
ㄴ의 공동 기술 개발은 기술개발에 해당하므로 지원활동이다.
ㄷ의 해외지사를 통한 마케팅 및 판매는 마케팅과 판매에 해당하므로 본원적 활동이다.
ㄹ의 해외지사를 통한 채용 및 교육·훈련은 인적자원관리에 해당하므로 지원활동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본원적 활동이 맞지만, ㄴ은 틀리다. 틀린 부분은 공동 기술 개발을 본원적 활동으로 묶은 점이다. 실제로는 기술개발은 지원활동이다.

② O
ㄱ의 원자재와 부품 조달은 내적 물류에 해당하고, ㄷ의 마케팅 및 제품 판매는 마케팅·판매에 해당한다. 둘 다 가치사슬의 본원적 활동이다.

③ X
ㄷ은 본원적 활동이 맞지만, ㄴ과 함께 묶어 정답으로 본 점이 틀리다. 틀린 부분은 ㄴ이다. 실제로는 ㄴ의 공동 기술 개발은 지원활동이므로 본원적 활동 조합이 아니다.

④ X
ㄹ은 틀리다. 틀린 부분은 해외지사를 통한 우수한 인적자원의 채용 및 교육·훈련을 본원적 활동으로 본 점이다. 실제로는 채용과 교육·훈련은 인적자원관리로서 지원활동이다.

오답 포인트

조달이라는 말이 나오면 모두 본원적 활동으로 오해하기 쉽고, 기술개발이나 인적자원관리를 기업 운영의 핵심 기능이라는 이유로 본원적 활동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가치사슬에서는 제품의 직접 흐름에 붙는 활동인지, 이를 뒤에서 지원하는 활동인지로 구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를 볼 때 제품이 들어오고, 만들어지고, 팔리고, 사후 서비스되는 흐름에 직접 붙어 있으면 본원적 활동으로 판단한다. 기술개발, 인사, 조직관리처럼 그 흐름을 지원하는 기능이면 지원활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본원적 활동은 물류·운영·판매·서비스이고, 기술개발과 인적자원관리는 지원활동이다.

NoteBase

문 10. 국제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의·협의의 관점을 불문하고 국제합작투자는 기업들의 지분 참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의 대상이 아니다.

② 국제 전략적 제휴는 본질적으로 단기적 보다는 장기적 목표 수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③ De la Sierra는 성공적인 파트너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양립성(compatibility), 능력(capability), 몰입성(commitment)을 제시하고 있다.

④ 전략적 제휴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비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에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 전략적 제휴의 범위, 제휴 목적, 파트너 선정 기준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략적 제휴는 둘 이상의 기업이 독립성을 유지한 채 특정 전략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방식이다.
광의의 전략적 제휴는 지분참여형과 비지분형을 모두 포함하고, 협의의 전략적 제휴는 주로 비지분형 협력을 가리킨다.
국제합작투자는 지분참여형 제휴이므로 광의의 전략적 제휴에는 포함된다.
성공적 파트너 선정의 대표 기준은 양립성, 능력, 몰입성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광의·협의의 관점을 불문하고'와 '전략적 제휴의 대상이 아니다'이다. 국제합작투자는 지분참여가 있는 형태이므로 협의의 전략적 제휴에서는 제외될 수 있지만, 광의의 전략적 제휴에는 포함된다. 올바르게는 '국제합작투자는 협의의 전략적 제휴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나 광의의 전략적 제휴에는 포함된다'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본질적으로 단기적보다는 장기적 목표 수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이다. 전략적 제휴는 인수합병보다 유연한 협력 형태이므로 기술획득, 시장진입, 위험분산처럼 특정 목표를 위한 단기·중기 목적에도 폭넓게 활용된다. 올바르게는 '전략적 제휴는 장기 목표에만 한정되지 않고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중기 협력에도 많이 활용된다'이다.
③ O: De la Sierra가 제시한 성공적 파트너 선정 기준으로 양립성, 능력, 몰입성을 드는 설명은 맞다. 서로 잘 맞는지, 필요한 역량이 있는지, 관계 유지 의지가 있는지를 함께 본다는 뜻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비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에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이다. 전략적 제휴는 비경쟁기업 사이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경쟁기업 사이에서도 기술개발, 생산, 마케팅 등을 위해 빈번하게 나타난다. 올바르게는 '전략적 제휴는 경쟁기업 간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비경쟁기업 간 제휴로만 한정되지 않는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광의와 협의의 범위를 뒤섞어 함정을 만든 선지이고, ②는 전략적 제휴를 장기 고정관계로만 보는 오해를 노린 선지이다. ④는 제휴가 경쟁회피 관계에서만 생긴다고 단정하게 만들어 공동경쟁적 제휴의 현실을 놓치게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략적 제휴 문제는 먼저 지분참여형까지 포함하는 광의인지 비지분협력 중심의 협의인지 범위를 구분한 뒤, 제휴 목적이 유연한 특정 목표 달성인지, 파트너 기준이 양립성·능력·몰입성인지 확인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광의 제휴는 합작투자 포함, 파트너 기준은 양립성·능력·몰입성, 제휴 상대는 경쟁기업도 가능하다.

NoteBase

문 11. 매트릭스조직(matrix orga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기능별 조직, 제품별 조직, 지역별 조직이 다차원적으로 중첩된 형태이다.
ㄴ. 장점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단위조직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ㄷ. 단점은 조직구조가 복잡하고 단위조직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매트릭스조직의 개념과 장단점을 함께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매트릭스조직은 기능별 조직 위에 제품별·지역별 조직을 중첩하여 두 개 이상의 지휘축을 함께 운영하는 다차원 조직이다.
기능별 조직은 전문성 중심의 수직 분화가 핵심이고, 제품별 조직은 제품 책임과 시장 대응이 핵심이며, 지역별 조직은 지역시장 적응이 핵심이다.
매트릭스조직은 이 축들을 결합하므로 상호 견제와 조정이 가능하지만, 지휘체계가 복잡해지고 부문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만 옳다고 본 보기이다.
ㄴ도 맞는 진술이다. 매트릭스조직은 복수 지휘축이 병존하므로 한 부문이 독주하기보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ㄷ도 맞는 진술이다. 구조가 복잡하여 권한 충돌과 부문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틀린 부분은 ㄴ, ㄷ을 제외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② X
ㄱ, ㄴ만 옳다고 본 보기이다.
ㄷ도 맞는 진술이다. 매트릭스조직은 보고관계가 이중화되기 쉬워 조직구조가 복잡하고 부문 간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틀린 부분은 ㄷ을 제외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③ X
ㄴ, ㄷ만 옳다고 본 보기이다.
ㄱ도 맞는 진술이다. 매트릭스조직은 기능별 조직에 제품별 조직, 지역별 조직을 중첩한 다차원 구조라는 점이 기본 정의이다.
틀린 부분은 ㄱ을 제외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④ O
ㄱ은 매트릭스조직의 구조적 정의를 설명한 진술이고, ㄴ은 단위조직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장점을 설명한 진술이며, ㄷ은 구조 복잡성과 갈등 심화라는 단점을 설명한 진술이다.
따라서 ㄱ, ㄴ, ㄷ을 모두 포함한 ④가 맞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ㄴ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거나 ㄷ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아 둘 중 하나를 배제하는 데 있다. 매트릭스조직은 조정과 균형이라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중 지휘에 따른 복잡성과 갈등이라는 단점을 함께 가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매트릭스조직이 나오면 먼저 기능별·제품별·지역별 축이 중첩된 다차원 구조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장점은 조정·균형·유연성, 단점은 권한중복·갈등·복잡성으로 연결하면 선지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매트릭스조직은 중첩 구조, 장점은 균형과 조정, 단점은 복잡성과 갈등이다.

NoteBase

문 12. 해상손해에서 비용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Salvage Charge

② Particular Charge

③ Sue and Labour Charge

④ Demurrage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해상보험의 비용손해에 포함되는 구조비,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과 체선료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Salvage Charge는 해상위험에서 목적물을 구조한 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비로서 비용손해에 해당한다.
Particular Charge는 피보험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특별비용으로서 비용손해에 해당한다.
Sue and Labour Charge는 손해의 방지나 경감을 위해 지출하는 손해방지비용으로서 비용손해에 해당한다.
Demurrage는 적하나 양하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체선료이므로 해상보험의 비용손해 분류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Salvage Charge는 구조자가 법률상 회수하는 구조비이므로 비용손해에 해당한다. 틀린 판단은 '비용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비용손해에 해당하므로 정답 선택지가 아니다.
② X: Particular Charge는 피보험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 지출하는 특별비용이므로 비용손해에 해당한다. 틀린 판단은 '비용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비용손해에 해당하므로 정답 선택지가 아니다.
③ X: Sue and Labour Charge는 피보험자가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해 지출하는 손해방지비용이므로 비용손해에 해당한다. 틀린 판단은 '비용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비용손해에 해당하므로 정답 선택지가 아니다.
④ O: Demurrage는 선박의 적하나 양하 지연 등으로 생기는 체선료이므로 비용손해가 아니다. 따라서 '비용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발문에 맞는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보기 ①부터 ③까지는 모두 해상보험에서 별도로 보상 논의가 이루어지는 비용손해라는 점이 함정이다. 비용이 지출된다는 공통점만 보고 ④의 체선료까지 같은 범주로 묶으면 오답이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기의 비용이 보험목적물의 구조, 보존, 손해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지출된 것인지 먼저 판단한다. 그 성격이면 비용손해이고, 운송 지연으로 생긴 계약상 부담이면 비용손해가 아니다.

암기 포인트

비용손해는 구조비,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이고, 체선료는 운송지연 비용이다.

NoteBase

문 13. Incoterms® 2010상 터미널인도(DAT)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또는 도로·철도·항공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②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

③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준비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된다.

④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취급하는데 수반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의도하는 때에는, 도착장소인도(DAP) 규칙 또는 관세지급인도(DDP) 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Incoterms 2010의 DAT와 DAP를 구별하는 기준, 특히 인도 완료 시점이 양하 후인지 양하 전인지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AT는 지정터미널에서 물품을 도착운송수단에서 내려 양하한 뒤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규칙이다.
DAP는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규칙이다.
따라서 DAT의 핵심 키워드는 '터미널·양하 완료'이고, DAP의 핵심 키워드는 '목적지·양하 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도로·철도·항공화물 터미널 등 다양한 장소를 포함하며, 지붕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② O
DAT에서는 매도인이 해당되는 경우 수출통관을 해야 한다. 반면 수입통관, 수입관세 부담, 수입통관절차 수행 의무는 매도인에게 없다.

③ X
틀린 부분은 '양하 준비된 상태로'이다.
DAT는 물품을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내려 양하한 후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둘 때 인도가 완료된다. '양하 준비된 상태'는 DAP의 설명이다.

④ O
당사자가 터미널 이후 다른 장소까지의 운송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비용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려면 DAT보다 DAP 또는 DDP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③은 DAT와 DAP의 문구를 뒤섞어 놓은 선지이다. 수험생은 지정터미널이라는 표현만 보고 DAT라고 판단하기 쉬우나, 정답을 가르는 단어는 장소가 아니라 '양하 준비'인지 '양하 완료'인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코텀즈 D군 규칙은 먼저 인도 장소를 보고, 다음으로 인도 시점이 양하 전인지 양하 후인지 확인하면 된다. 터미널에서 양하까지 끝났으면 DAT이고, 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 위에 둔 채 양하만 남아 있으면 DAP이다.

암기 포인트

DAT는 터미널에서 내려 준다, DAP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놓기만 한다.

NoteBase

문 14. 해외시장 진입방법 관련 선택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과 ㉡을 주장한 사람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모형은 수출, 라이센싱, 해외직접투자의 세 가지 해외시장 진입방법에 따른 비용과 그 변동추이를 중심으로 최적의 해외시장 진입방법을 수식으로 설명하고, (㉡) 모형은 진입방법의 유형을 수출, 라이센싱, 해외직접투자 세 가지로 구분하되 이들의 선택과정을 무역장벽과 기술유출위험 여부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① ㉠: 허쉬(S. Hirsch), ㉡: 러그만(A. M. Rugman)

② ㉠: 루트(F. R. Root), ㉡: 허쉬(S. Hirsch)

③ ㉠: 홉스테드(G. Hofstede), ㉡: 루트(F. R. Root)

④ ㉠: 러그만(A. M. Rugman), ㉡: 홉스테드(G. Hofstede)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해외시장 진입방법 선택모형의 핵심 기준을 학자 이름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허쉬(S. Hirsch): 수출·라이선싱·해외직접투자를 비용과 위험의 비교로 설명하는 모형이다.
러그만(A. M. Rugman): 내부화이론 관점에서 수출·라이선싱·해외직접투자 선택을 무역장벽과 기술유출위험 같은 시장불완전성으로 설명한다.
루트(F. R. Root): 기업 내부요인과 외부환경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해외시장 진입전략 틀을 제시한 학자이다.
홉스테드(G. Hofstede): 국가문화 차원을 제시한 학자로, 해외시장 진입방법 선택모형의 대표 연결 대상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ㄱ을 허쉬, ㄴ을 러그만으로 연결한 것이 맞다. 허쉬 모형은 수출·라이선싱·해외직접투자 3가지 방식의 비용과 위험을 비교해 최적 진입방식을 설명하고, 러그만 모형은 무역장벽과 기술유출위험을 기준으로 세 방식을 선택하는 내부화 논리를 설명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ㄱ을 루트, ㄴ을 허쉬로 연결한 점이다. 루트는 진입방식 전반의 전략적 고려요인을 설명한 학자이지, 비용과 그 변동추이를 중심으로 한 수식 모형의 대표 연결이 아니다. 허쉬는 오히려 ㄱ에 들어가야 한다. 올바르게는 ㄱ은 허쉬, ㄴ은 러그만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ㄱ을 홉스테드, ㄴ을 루트로 연결한 점이다. 홉스테드는 문화차원 이론의 학자이므로 해외시장 진입방법의 비용비교 모형과 연결되지 않는다. 루트 역시 무역장벽과 기술유출위험 중심의 내부화 설명 주체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ㄱ은 허쉬, ㄴ은 러그만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ㄱ을 러그만, ㄴ을 홉스테드로 연결한 점이다. 러그만은 ㄴ의 내부화 관점 설명에 대응하고, 홉스테드는 해외시장 진입방법 선택모형의 연결 대상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ㄱ은 허쉬, ㄴ은 러그만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허쉬, 러그만, 루트가 모두 해외시장 진입과 관련된 학자라서 이름이 섞이기 쉽다. 특히 루트는 진입전략 일반론을 다루므로 비용비교 모형이나 내부화 모형과 혼동하기 쉽고, 홉스테드는 국제경영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이 문항의 진입방법 선택모형과는 결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출·라이선싱·해외직접투자를 비용 비교로 수식화하면 허쉬, 무역장벽과 기술유출위험으로 내부화를 설명하면 러그만으로 판단하면 된다. 문화차원은 홉스테드, 전략 일반 틀은 루트로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허쉬는 비용비교, 러그만은 내부화, 루트는 전략틀, 홉스테드는 문화차원이다.

NoteBase

문 15.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추심방식은 신용장방식과는 달리 은행의 대금 지급 확약이 없다.

② 추심방식은 결제기간에 따라 지급인도조건(D/P)과 인수인도조건(D/A)으로 나누어진다.

③ 신용장 종류에는 환어음에 선적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무담보신용장(clean credit)이 있다.

④ 신용장은 수익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발행은행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개설의뢰인이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인수하겠다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추심방식과 신용장방식의 결제 구조, 그리고 신용장의 기본 당사자 관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추심방식은 수출상이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은행을 통해 보내고 은행은 서류 추심만 중개할 뿐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않는 방식이다.
신용장방식은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발행은행이 수익자에게 서류 일치 시 대금을 지급하거나 환어음을 인수하겠다고 확약하는 방식이다.
추심방식의 구분은 지급 시점에 따라 D/P와 D/A로 나뉘고, 신용장은 서류 첨부 여부에 따라 화환신용장과 무담보신용장으로 나눌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추심방식은 은행이 서류 추심을 대행하는 방식이므로 신용장처럼 은행의 독립적인 지급확약이 없다.

② O
추심방식은 대금 결제 시점에 따라 지급인도조건(D/P)과 인수인도조건(D/A)으로 구분된다. D/P는 지급과 상환으로 서류를 넘기고, D/A는 환어음 인수와 상환으로 서류를 넘긴다.

③ O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은 환어음에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는 신용장이고,
무담보신용장(clean credit)은 선적서류 첨부가 요구되지 않는 신용장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수익자의 요청과 지시`, `개설의뢰인이 발행한 환어음`이다.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발행은행이 개설하고,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인수하거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지급확약이다.

오답 포인트

신용장의 당사자 관계를 거꾸로 읽으면 ④에 흔들리기 쉽다. 신용장의 출발점은 개설의뢰인이고, 지급 상대방은 수익자라는 축을 놓치면 `수익자의 요청`, `개설의뢰인이 발행한 환어음` 같은 바꿔치기를 잡아내지 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결제 방식 문제는 먼저 은행이 지급을 확약하는지, 다음으로 서류 인도 기준이 지급인지 인수인지, 마지막으로 신용장의 당사자가 개설의뢰인·발행은행·수익자 중 누구인지 순서대로 보면 판단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추심은 은행 보증이 없고 D/P·D/A로 나뉘며, 신용장은 개설의뢰인 요청에 따라 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을 확약하는 방식이다.

NoteBase

문 1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1980)상 규정되어 있는 매수인의 구제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해제권
② 특정이행청구권
③ 물품명세확정권
④ 대금감액청구권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CISG상 매수인의 구제방법과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권한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계약해제권, 특정이행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 구제수단이지만 물품명세확정권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특정이행청구권은 매도인에게 계약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권리이다.
대금감액청구권은 하자 있는 물품이 인도된 경우 그 하자 비율만큼 대금을 줄이는 권리이다.
물품명세확정권은 매수인이 물품의 형태·치수·기타 특성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그 명세를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핵심 구분

CISG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대응하는 매수인 구제로 특정이행청구권(제46조), 계약해제권(제49조), 대금감액청구권(제50조), 손해배상청구권(제45조, 제74조 이하)을 둔다. 반면 물품명세확정은 제65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매수인이 명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행사하는 권한이다. 따라서 매수인의 구제방법으로 볼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계약해제권은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 등이 있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② O
특정이행청구권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인도 등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CISG상 매수인의 구제방법에 해당한다.

③ X
물품명세확정권은 매수인의 구제방법이 아니다. 이는 매수인이 물품의 규격이나 형태 등을 정해야 함에도 정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스스로 그 명세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틀린 표현: 매수인의 구제방법
올바른 표현: 매수인의 명세불이행 시 매도인이 행사하는 물품명세확정 권한

④ O
대금감액청구권은 부적합한 물품이 인도된 경우 매수인이 그 하자 비율만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CISG상 매수인 구제수단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물품명세'라는 표현 때문에 하자보완이나 대체물 인도처럼 매수인을 보호하는 제도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권한은 매수인의 불이행을 전제로 매도인에게 주어진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CISG 구제수단 문제는 먼저 누가 채무를 위반했는지와 그 권한이 누구에게 부여되는지를 본다. 매도인의 위반에 대응하여 매수인이 행사하는 권리이면 매수인 구제수단이고, 매수인의 불이행을 전제로 매도인에게 주어진 권한이면 매수인 구제가 아니다.

암기 포인트

매수인 구제는 해제·이행청구·감액·손해배상이고, 명세확정은 매도인 권한이다.

NoteBase

문 17.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y)에 속한다.

②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보조금 규정상 정부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 세액공제와 같이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포함된다.

④ 수입물품 대신 국내물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공되는 수입대체보조금은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y)이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 금지보조금과 상계가능보조금의 구분, 그리고 보조금의 성립요건인 정부의 재정적 기여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수출성과 연계 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은 금지보조금이고, 그 밖의 특정 보조금이 타국에 불이익을 주면 상계가능보조금이 된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금지보조금 = 협정이 그 자체로 금지하는 보조금으로, 대표적으로 수출성과 연계 보조금과 국산품 사용 조건부 보조금이 이에 해당한다.
상계가능보조금 = 금지보조금은 아니지만 특정성이 있고 다른 회원국에 피해나 심각한 손상을 주면 제소나 상계조치 대상이 되는 보조금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수출실적에 연계된 보조금과 수입물품 대신 국내물품 사용을 조건으로 한 보조금은 금지보조금이다.
반면 상계가능보조금은 금지보조금이 아닌 특정 보조금이 다른 회원국에 산업피해, 혜택의 무효화·침해,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는 직접 자금이전뿐 아니라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의 포기나 미징수도 포함되고, 여기서 정부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영토 내 공공기관과 지방정부도 포함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협정상 수출성과에 조건부인 보조금이므로 상계가능보조금이 아니라 금지보조금이다.
틀린 표현: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y)"
올바른 표현: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y)"

② O
보조금의 재정적 기여 주체인 정부에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영토 내 공공기관이 포함되므로 지방정부도 보조금 규정상 정부의 범위에 들어간다.

③ O
세액공제처럼 정부가 원래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성립요건에 포함된다.

④ O
수입물품 대신 국내물품을 사용한 경우에 제공되는 수입대체보조금은 협정상 금지보조금이다. 이는 국내산 사용을 조건으로 한 보조금이기 때문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①의 "수출실적에 따라"라는 표현을 보고도 금지보조금과 상계가능보조금의 분류를 뒤집었을 가능성이 높다. 보조금 협정은 모든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수출성과 연계와 국산품 사용 조건부만 별도로 금지한다는 구조를 놓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수출실적, 수출성과, export performance가 보이면 먼저 금지보조금 여부를 본다. 국내산 사용 조건이 보이면 역시 금지보조금으로 판단한다. 세액공제·세금감면처럼 정부 세입 포기가 나오면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하는지 연결해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수출연계와 국산품사용조건부는 금지보조금, 세입 포기는 재정적 기여이다.

NoteBase

문 18. 브루크(M. Z. Brooke)와 렘머스(L. H. Remmers)는 기업의 국제화 동기를 방어적, 공격적, 기타 동기로 구분하고 있다. 방어적 동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으로부터의 기업 보호

② 특허권 보호

③ 원자재 및 부품 조달의 어려움 극복

④ 범세계적 시장 확대와 기업의 성장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브루크와 렘머스의 기업 국제화 동기 분류에서 방어적 동기와 공격적 동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방어적 동기는 현재 시장지위나 기업의 생존기반을 지키기 위해 소극적으로 해외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핵심은 보호·회피·확보이다.
공격적 동기는 새로운 시장을 넓히고 매출과 성장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핵심은 확대·성장·이익추구이다.
기타 동기는 방어와 공격으로 바로 묶기 어려운 경영자 개인 성향이나 명성, 경험축적 등의 동기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은 기존 경쟁지위를 지키기 위한 동기이므로 방어적 동기에 해당한다. 틀린 부분은 이 선지를 '방어적 동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고르는 판단이다. 실제로는 무역장벽 회피·보호는 방어적 동기이다.
② X — 특허권 보호는 기업의 기술우위나 독점적 이점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동기이므로 방어적 동기에 해당한다. 틀린 부분은 이 선지를 정답으로 보는 판단이다. 실제로는 권리 보호 목적의 국제화는 방어적 동기이다.
③ X — 원자재 및 부품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것은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성격이 강하므로 방어적 동기에 해당한다. 틀린 부분은 이 선지를 '방어적 동기가 아닌 것'으로 보는 점이다. 실제로는 공급불안 해소와 자원확보는 방어적 동기이다.
④ O — 범세계적 시장 확대와 기업의 성장은 새로운 시장 개척과 외형 성장을 노리는 적극적 목적이므로 공격적 동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어적 동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발문에 맞는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자원·부품 확보를 공격적 확장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기준은 해외에서 더 크게 벌려는가보다 현재 생산과 경쟁기반을 지키려는가에 있다. 보호, 회피, 확보는 방어적 동기이고 확대, 성장, 시장개척은 공격적 동기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핵심 동사를 먼저 본다. 장벽 회피, 권리 보호, 공급 확보처럼 기존 기반을 지키는 표현이면 방어적 동기이고, 시장 확대, 성장, 이익 증대처럼 바깥으로 넓히는 표현이면 공격적 동기이다.

암기 포인트

방어적 동기는 지키기 위한 국제화이고, 공격적 동기는 키우기 위한 국제화이다.

NoteBase

문 19.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7조에 대한 규정이다. ㉠과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At least (㉠) original of each document stipulated in the credit must be presented.
ㄴ. If a credit requires presentation of multiple documents by using terms such as ”in duplicate”, ”in two fold” or ”in two copies”, this will be satisfied by the presentation of at least (㉡) original and the remaining number in copies, except when the document itself indicates otherwise.

① ㉠: one, ㉡: one
② ㉠: one, ㉡: two
③ ㉠: one, ㉡: three
④ ㉠: three, ㉡: three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UCP 600 제17조의 원본 서류 제출 원칙과 복수 부수 요구 시 충족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각 서류마다 최소 원본 수와 "in duplicate" 등의 표현이 요구하는 원본·사본의 조합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original은 은행이 원본으로 취급하는 서류를 뜻하고, copy는 그 밖의 사본을 뜻한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신용장에서 요구한 각 서류는 최소 one original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in duplicate", "in two fold", "in two copies"처럼 복수 부수를 요구하면 at least one original과 나머지 부수의 copies로 충족된다.
즉 제17조는 '각 서류당 최소 1원본'과 '복수 부수 요구 시 1원본 + 잔여 사본'을 구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제17조는 각 서류마다 최소 one original이 제시되어야 하고, 복수 부수 요구도 최소 one original이면 충족된다고 본다. 따라서 ㄱ=one, ㄴ=one의 연결이 맞다.

② X
- ㄱ을 one으로 본 점은 맞지만, ㄴ을 two로 본 점이 틀리다. 복수 부수 요구는 two originals를 요구하지 않는다.
- 틀린 표현: ㄴ two
- 올바른 표현: ㄴ one

③ X
- ㄱ을 one으로 본 점은 맞지만, ㄴ을 three로 본 점이 틀리다. 제17조는 남는 부수는 copies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므로 three originals를 요구하지 않는다.
- 틀린 표현: ㄴ three
- 올바른 표현: ㄴ one

④ X
- ㄱ부터 틀리다. 제17조는 each document마다 최소 one original을 요구하므로 three originals는 아니다. ㄴ도 three가 아니라 one이다.
- 틀린 표현: ㄱ three, ㄴ three
- 올바른 표현: ㄱ one, ㄴ one

오답 포인트

복수 부수 요구를 '원본도 그 부수만큼 전부 제출'로 오해하면 ②~④로 흔들린다. 이 조문은 원본 수를 늘리는 규정이 아니라 최소 1원본과 나머지 사본 허용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UCP 조문에서 duplicate, two fold, two copies 같은 표현이 나오면 먼저 '최소 1원본' 원칙을 떠올린다. 그다음 추가 부수는 별도 문구가 없으면 copies로 채워진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제17조는 각 서류 1원본이 기본이고, 복수 부수 요구는 1원본 + 나머지 사본이다.

NoteBase

문 20. 바그와티(J. Bhagwati)의 궁핍화성장(immiserizing growt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실세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며 농산품보다 공산품 교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② 대국(大國)의 수출재 부문에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교역조건이 악화될 경우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③ 일국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 경우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④ 수출재 가격하락에 의한 후생감소효과보다 생산증가에 의한 후생증가효과가 더 클 경우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바그와티의 궁핍화성장이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궁핍화성장은 대국에서 수출편향적 성장이 일어나 수출공급이 크게 늘고, 그 결과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후생감소가 생산증가에 따른 후생증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핵심 키워드는 대국, 수출편향 성장, 교역조건 악화, 후생감소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공핍화성장은 현실에서 자주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가능한 예외적 현상이다.
- 틀린 표현은 '자주 나타나는 현상'과 '농산품보다 공산품교역에서 많이 나타난다'이다.
- 올바르게는 '드물게 나타나며, 주로 1차산품처럼 대외수요가 비탄력적인 수출재에서 논의된다'이다.

② O
- 대국의 수출재 부문에서 성장이 일어나면 세계시장 공급증가로 수출가격이 하락해 교역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
- 그 교역조건 악화가 충분히 크면 성장의 이익보다 후생감소가 더 커져 궁핍화성장이 성립할 수 있다.

③ X
- 공핍화성장은 수출재에 대한 해외수요가 탄력적일수록이 아니라 비탄력적일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다.
- 틀린 표현은 '탄력적'이다.
- 올바르게는 '수출재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공급증가가 가격을 크게 떨어뜨려 궁핍화성장 가능성이 높아진다'이다.

④ X
- 공핍화성장은 생산증가에 따른 후생증가효과가 더 클 때가 아니라, 수출재 가격하락에 따른 후생감소효과가 더 클 때 성립한다.
- 틀린 표현은 '후생증가효과가 더 클 경우'이다.
- 올바르게는 '수출재 가격하락에 따른 후생감소효과가 생산증가에 따른 후생증가효과를 초과할 경우'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학생들이 '경제성장은 항상 후생을 높인다'고 단순화하면 ④에 끌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공핍화성장이 성장의 예외라는 점과, 조건이 대국·수출편향 성장·비탄력적 해외수요라는 점을 동시에 묻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핍화성장 문제는 먼저 대국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성장이 수출재 편향인지 본다. 그다음 수출재 가격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는지, 마지막으로 그 후생감소가 성장 이익을 초과하는지를 순서대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공핍화성장 = 대국의 수출편향 성장 + 비탄력적 해외수요 + 교역조건 급악화로 후생 감소이다.

NoteBase